

## 4. 군형편(軍形篇)

‘군형(軍形)’이란 군의 배치 형태를 말한다.

군은 배치 형태에 따라 강하거나 약하게 된다. 군을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손자는 싸우기 전에 아군의 모든 허점을 보완하고 적군의 약점을 공격하라고 강조한다.

孫子曰 昔之善戰者는 先爲不可勝하여 以待敵之可勝하나니  
손자왈 석지선전자 선위불가승 이대적지가승

손자 말하기를 옛날에 잘 싸우는 사람들은, 적이 이기지 못할 나의 태세를 먼저 갖추고 적의 허점이 조성되기를 기다렸다고 하였다.

孫子曰 昔之善戰者는 先爲不可勝하여 以待敵之可勝하나니

不可勝은 在己하고 可勝은 在敵이라  
불가승 재기 가승 재적

적이 이기지 못할 태세는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허점의 조성은) 적에게 달려 있다.

不可勝은 在己하고 可勝은 在敵이라

故로 善戰者라도 能爲不可勝이오 不能使敵之必可勝이니라  
고 선전자 능위불가승 불능사적지필가승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라도 적이 이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적으로 하여금 허점을 만들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故로 善戰者라도 能爲不可勝이오 不能使敵之必可勝이니라

故로 曰 勝可知不可爲니라 不可勝者는 守也오 可勝者는 攻也니  
고 왈 승가지불가위 불가승자 수야 가승자 공야

그러므로 승리란 알 수는 있지만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적이)이길 수 없는 것은 방어하기 때문이요, (내가)이기는 것은 공격하기 때문이다.

故로 曰 勝可知不可爲니라 不可勝者는 守也오 可勝者는 攻也니

守則不足이오 攻則有餘라

수즉부족      공격유여

지키는 것은 곧 부족하기 때문이요, 공격함은 곧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守則不足이오 攻則有餘라

善守者는 藏於九地之下하고 善攻者는 動於九天之上이라

선수자      장어구지 지하      선공자      동어구천 지상

잘 지키는 자는 깊은 땅속에 숨은 것 같이 하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하늘 위에서 움직이듯 한다.

善守者는 藏於九地之下하고 善攻者는 動於九天之上이라

故로 能自保而全勝也니라

고 능자보이전승야

그러므로 능히 자신을 보존하고 승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故로 能自保而全勝也니라

見勝이 不過衆人之所知면 非善之善者也요 戰勝而天下曰善이 非善之善者也라.

견승 불과중인지소지 비선지선자야 전승이천하왈선 비선지선자야

승리를 보는 눈이 많은 사람들의 아는 것보다 더 나올 것이 없으면 최고 수준이 아니며, 싸움에 이겨 세상 사람들이 “잘 싸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최고 수준은 아니다.

見勝이 不過衆人之所知면 非善之善者也요 戰勝而天下曰善이 非善之善者也라.

故로 擧秋毫 不爲多力이오 見日月 不爲明目이오 聞雷霆 不爲總耳라  
고 거추호 불위다력 견일월 불위명목 문뢰정 불위총이

그 까닭은 가는 털오라기를 든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하지 않으며, 해와 달을 본다고 해서 눈이 밝다고 하지 않으며, 천둥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故로 擧秋毫 不爲多力이오 見日月 不爲明目이오 聞雷霆 不爲總耳라

古之所謂善戰者는 勝於易勝者也니 故로 善戰者之勝也는 無智名하고 無勇功이라  
고 지소위선전자 승어이승자야 고 선전자지승야 무지명 무용공

예로부터 잘 싸웠다고 불리던 자는 이기기 쉬운 자에게 이긴 것이니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의 승리는 지혜롭다는 이름도 나타남이 없고 옹맹스럽다는 무공도 나타남이 없다.

古之所謂善戰者는 勝於易勝者也니 故로 善戰者之勝也는 無智名하고 無勇功이라

故로 其戰勝不忒이니 不忒者는 其所措勝이 勝已敗者也라.

고 기전승불특 불특자 기소조승 승이패자야

그의 싸워서 이김에 어긋남이 없으니, 어긋남이 없는 것은 그 승리 여건을 조성함이 이미 저 있는 적에게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故로 其戰勝不忒이니 不忒者는 其所措勝이 勝已敗者也라.

故로 善戰者는 立於不敗之地하고 而不失敵之敗也라

고 선전자 입어불패지지 이불실적지패야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는 패하지 않을 태세에 서서, 적의 패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故로 善戰者는 立於不敗之地하고 而不失敵之敗也라

是故로 勝兵은 先勝而後에 求戰하고 敗兵은 先戰而後 求勝하나니  
시고 승병 선승이후 구전 패병 선전이후 구승

이런 까닭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후에 승리를 구하려 한다.

是故로 勝兵은 先勝而後에 求戰하고 敗兵은 先戰而後 求勝하나니

善用兵者는 修道而保法이라 故로 能爲勝敗之政이니라  
선용병자 수도이보법 고 능위승패지정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 그리하여 (아군이)승리하고 (적군이)패배하는 정사를 펼 수 있다.

善用兵者는 修道而保法이라 故로 能爲勝敗之政이니라

兵法에 一曰度요 二曰量이요 三曰數요 四曰稱이요 五曰勝이니  
병법 일월도 이월량 삼월수 사월칭 오월승

병법에 말하기를 첫째는 면적의 계측이요, 둘째는 자원의 양이요, 셋째는 군사의 수요, 넷째는 전력의 비교요, 다섯째는 승리에측이니

兵法에 一曰度요 二曰量이요 三曰數요 四曰稱이요 五曰勝이니

地生度하고 度生量하고 量生數하고 數生稱하고 稱生勝이라  
지생도 도생량 량생수 수생칭 칭생승

지형이 넓이를 좌우하고, 넓이가 자원량을 좌우하고, 자원량이 군사의 수를 좌우하고, 군사의 수가 전력비교를 좌우하고, 전력비교가 승리 예측을 좌우하게 된다.

地生度하고 度生量하고 量生數하고 數生稱하고 稱生勝이라

故로 勝兵은 若以鎰稱銖하고 敗兵은 若以銖稱鎰이니  
고 승병 약이일칭수 패병 약이수칭일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큰 것(鎰)으로써 작은 것(銖)을 저울질 하는 것과 같고, 패하는 군대는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저울질 하는 것과 같다.

故로 勝兵은 若以鎰稱銖하고 敗兵은 若以銖稱鎰이니

勝者之戰이 若決積水 於千仞之谿者는 形也니라  
승자지전 약결적수 어천인지계자 형야

이기는 자의 싸움은 마치 천길 계곡 위에 막아둔 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勝者之戰이 若決積水 於千仞之谿者는 形也니라